

## 退溪와 星湖의 易學思想에 대한 參量

김인철\*

### 차례

- I. 머리말
- II. 『易學啓蒙』의 성격과 그 概略的인 構圖
- III. 朱子의 '聖人則河圖'에 대한 解釋
- IV. 朱子의 解釋에 대한 退溪의 反響
- V. 朱子의 解釋에 대한 星湖의 反響
- VI. 맺는 말

### 【국문초록】

본고는 朱熹의 '聖人則河圖'에 대한 해석을 두고 그에 대한 退溪 李滉과 星湖 李瀾의 반응과 견해를 중심으로 양인이 노정하고 있는 해석학적 입장의 차이점과 그 의의를 검토한 것이다. 朱熹의 '聖人則河圖'에 대한 해석은 邵雍의 先天論을 전제로 하여 聖人 즉 伏羲씨가 四象으로 상징되는 四方의 河圖數를 四象의 數와 位의 개념을 통해 八卦를 유추해 내고 그 방향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퇴계의 반응은 주희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수용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그것은 주희 해석의 특징을 闡揚하는 것으로써 구체화 되었다. 이에 비해 성호는 주희와는 다른 기준, 즉 河圖數를 홀수, 짝수로 구분하고 數의 많고 적음 그리고 數의 陰陽的 性格에 따른 방위 설정 등을 근거로 하여 河圖로부터 八卦 方位를 합리적으로 유추해 내고 있다. 주희 해석에 대한 퇴계와 성호의 상이한 반응은 퇴계가 주희에 대해 尊信, 私淑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고 한다면, 성호는 아무리 주희라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점은 의심하며 새로운 합리적 대안

\* 고려대학교 강사.

을 모색하고자 하였던 학문의 기본적인 태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것은 『論語』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述而不作’과 ‘溫故知新’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이함이 갖는 의의는 전자가 조선 전기 주자학의 발전을 유도하였다면, 후자는 實學的 經典解釋의 시초를 開明하였다는 데에서 찾아질 수 있겠다.

주제어

退溪, 星湖, 朱熹, 河圖, 先天論, 述而不作, 溫故知新

## I. 머리말

退溪 李滉(1501~1570)과 星湖 李瀾(1681~1763)은 2세기 가까운 시간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모두 朱子學을 깊이 섭렵·이해한 기반 위에서 자신의 학문세계를 구축하였던, 조선 전·후기를 대표하는 儒學者라고 할 수 있다. 퇴계와 성호를 조선 전·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라 칭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퇴계가 朱子(朱熹, 1130~1200)를 尊信, 私淑함으로써 麗末 이후 당대까지의 학문적 성취를 大成하여 ‘理論儒學의 代表者요 宗匠이며 程朱學의 忠實한 後繼者’<sup>1)</sup>가 되었다고 한다면, 성호는 주자와 퇴계의 學德을 존송하면서도 몰주체적으로 맹종함이 없이 시대와 사회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經典解釋을 시도함으로써 近畿實學派의 大宗<sup>2)</sup>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겠기 때문이다. 환언하자면 퇴계가 주자의 학설을 온축, 천발함으로써 조선 전기 성리학을 着根시키고 이후의 내재적 발전을 誘導하였다면, 성호는 주자의 견해라 하

1) 玄相允, 『朝鮮儒學史』, 민중서관, 1977, 80쪽

2) 李佑成,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1983, 96쪽

더라도 의심스러운 점은 회의하고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경전의 本旨를 탐구, 자득함으로써 조선 후기 경전해석의 새로운 기풍을 推動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 경전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퇴계와 성호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갖는 의의는 비단 양인의 견해를 究明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조선 전·후기 경학연구의 기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서도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주자 역학의 특징적인 성격을 구성하면서 퇴계와 성호가 모두 그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을 추출해 한 번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易學啓蒙』 ‘聖人則河圖’條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 그에 대한 兩人의 견해를 衡量해 보는 과정을 밟아갈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퇴계와 성호가 露呈하는 해석학적 立場의 同異點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 II. 『易學啓蒙』의 성격과 그 概略的인 構圖

퇴계와 성호의 역학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그 전제로서 먼저 주자의 역학사상에 있어 『역학계몽』이 갖는 의의와 그 대략적인 구도를 제시해 두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자 역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가 『周易』의 기본적인 성격을 占을 치기 위한 책, 즉 占書로서 출발하였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解易方式에 있어 義理的 혹은 象數的 方式이 동원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저에는 언제나 『주역』을 접서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그의 의식이 면면히 관류하고 있었다. 이 점

은 象과 占을 기축으로 하여 경문을 해석한 그의 주역 주석서 『周易本義』나 「繫辭傳」, 「說卦傳」, 『春秋左氏傳』, 『國語』 등을 전거로 하여 古代筮法을 재구성하고 있는 『역학계몽』을 일별해 보면 쉽게 간취되어질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특히 『역학계몽』<sup>3)</sup>은 『주역』의 占書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定礎시키기 위한 주자의 주도면밀한 의도가 반영되어져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역학계몽』은 전체가 4편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河圖와 洛書가 함축하고 있는 象과 數에 근본하여 『주역』이 성립하였음을 闡明하고 있는 1. 本圖書, 八卦의 制作淵源과 伏羲氏때의 팔괘 次序와 方位, 文王때의 팔괘 方位, 팔괘의 卦德, 팔괘의 遠取·近取한 象 그리고 人倫에서 취해진 팔괘의 象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2. 原卦畫, 筮法方式을 해명하고 있는 3. 明蓍策 그리고 占斷方式을 제시하고 있는 4. 考變占이 그것들이다. 이를 본고의 논지에 맞춰 「繫辭傳」, 「說卦傳」 傳文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혹은 부분의 형태로 요약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련번호를 붙인다.)

1. 河圖와 洛書에 근본함. (本圖書第一)

① 「繫辭傳」에 말하기를 “河水에서 그림이 나오고 洛水에서 글이 나오니 聖인이 이를 법칙으로 삼았다.”라 하였다.<sup>4)</sup>

② 天數가 1이고 地數가 2이며 천수가 3이고 지수가 4이며 천수가 5이고 지수가 6이며 천수가 7이고 지수가 8이며 천수가 9이고 지수가 10이니, 천수가 다섯 개이고 지수가 다섯 개이다. 다섯 자리가 서로 만나 각기 결합

3) 『역학계몽』은 주자 57세(1186년)때에 완성되었고, 『주역본의』는 59세(1188년)때 일차적으로 완료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세동, 「朱子 『周易本義』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6. 27-32쪽에 상론되어져 있음.

4) 『周易傳義大全』, 「繫辭上傳」, 11장, 598쪽 上左. (보경문화사, 1983. 이하 『傳義大全』으로 약칭하고 출판사항은 생략함.)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

하니 천수는 25가 되고 지수는 30이 된다. 무릇 天地의 수는 55니, 이것이 變化를 이루며 鬼神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sup>5)</sup>

2. 卦畫의 근원을 탐구함. (原卦畫第二)

③ 옛날 복희씨가 천하의 왕 노릇을 할 적에 우리러 하늘에서는 象을 관찰하였고 구부러서는 땅에서 법칙을 관찰하였으며 새·짐승들의 무늬와 땅의 마땅함을 관찰하였고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여러 사물에서 취하였다. 이에 비로소 팔괘를 지어 神明한 德에 통하여 萬物의 실상을 類別하게 되었다.<sup>6)</sup>

④ 易에는 太極이 있어 이것이 兩儀를 낳고 兩儀가 四象을 낳고 四象이 八卦를 낳는다.<sup>7)</sup>

⑤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산과 못이 기운을 통하며 천둥과 바람이 서로 부딪치고 물과 불이 서로 해치지 아니하니 八卦가 서로 섞이게 된다. 지나온 것을 세는 것은 순하고 다가올 것을 아는 것은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易은 거슬러 셈하는 것이다.

우레로 움직이게 하고 바람으로 흩어지게 하며, 비로 윤택하게 하고 해로 마르게 한다. 艮으로 그치게 하고 兌로 기쁘게 하며, 乾으로 主宰하게 하고 坤으로 갈무리하게 하느니라. <sup>8)</sup>

⑥ 「說卦傳」5장부터 10장까지.

3. 蓍策에 의한 占法을 밝힘. (明蓍策第三)

5) 『傳義大全』, 「繫辭上傳」 9장, 581쪽 上左-582쪽 上右. ‘天一, 地二, 天三, 地四, 天五, 地六, 天七, 地八, 天九, 地十,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 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

6) 『傳義大全』, 「繫辭下傳」, 2장, 607쪽 上右.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7) 『傳義大全』, 「繫辭上傳」 11장, 596쪽 下右.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8) 『傳義大全』, 「說卦傳」, 3장·4장, 637쪽 上左-638쪽 上左.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八卦相錯. 數往者順, 知來者逆. 是故易逆數也. 雷以動之, 風以散之, 雨以潤之, 日以烜之. 艮以止之, 兌以說之, 乾以君之, 坤以藏之.’

⑦ 「繫辭上傳」 9장 중 大衍之數五十부터 可與祐神矣까지.

#### 4. 變爻에 의한 占斷法을 고찰함. (考變占第四)

『주역』을 占書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이를 주장하려 할 때 아마도 가장 먼저 부딪치는 중요한 문제는 筮法과 八卦制作의 先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팔괘가 없는 상태에서의 서법만은 의미가 없으니, 최소한 서법은 팔괘 제작과 同時的으로 구상되었거나 아니면 팔괘 성립 이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상의 先後를 엄밀하게 존중한다면 팔괘의 제작 연원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③은 ①보다 먼저 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같은 첫 번째 편에 편입되어야 할 터인데, 주자는 ‘『계사전』에서는 비록 복희씨가 河圖를 받아서 『주역』을 만들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나, 이른바 “우러러 관찰하고 구부려 살폈다.”라든가 “멀리에서 구하고 가까이에서 취했다.”라는 것에 河圖가 그 중의 한 가지 일이 아니라고 어찌 알겠는가! …… 비록 『계사전』에서 성인이 『주역』을 만든 연유를 논한 것이 한 가지 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 河圖를 얻은 뒤에야 결정되었다는 것에 방해되지는 않는다.’<sup>9)</sup>라고 하여 하도의 數를 서법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제기·활용하기 위해 ‘本圖書’를 첫 편으로 하고 그 첫 번째 문장으로 ‘聖人則河圖’條를 배치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배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占書로서의 『주역』’이라는 자기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견고히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는, 『주역본의』의 장절 구분에 따르면, 전적으로 筮法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계사

9) 胡廣(等編), 『性理大全』 卷十四, 「易學啓蒙一」, 保景文化社 影印本, 1984, 247쪽 上右-上左 細註. ‘繫辭雖不言伏羲受河圖以作易, 然所謂仰觀俯察遠求近取, 安知河圖非其中一事耶. …… 雖繫辭所論聖人作易之由者非一, 而不害其得此而後結之也.’

상전」 9장 중 1절·2절의 ‘天地之數’를 제시한 부분인 ②를 바로 뒤이어 배치하였다는 데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자가 ③의 함의를 축소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筮法과의 관련성은 희소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邵雍(1011~1077)의 先天學說을 수용해, 복희씨 때의 팔괘 생성과 순서, 그리고 팔괘의 방위를 指示한다는 ④, ⑤와 연계시킴으로써 河圖와 복희씨 때의 易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의미있는 전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⑥에서는 소옹의 학설에 따라 文王八卦의 方位, 卦德과 ③에서 언급된 복희씨의 ‘近取諸身, 遠取諸物’의 象, 八卦의 人倫之象 등을 개진하고 있는 「설괘전」 5장부터 10장까지의 문장을 배치함으로써 卦畫과 관련된 논의를 한 걸음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1. 본도서 2. 원패획 편을 앞에 두어 『주역』의 源頭處로서의 복희씨 때 易의 大綱을 제기한 후, 3. 명시책 편에서 주자는 ②와 말미의 ‘孔子가 말하길 “變化의 道를 아는 자는 아마도 神의 하는 바를 알 것 이 로다.”하였다.(孔子曰, 知變化之道者, 其知神之所爲乎.)’라는 탄사를 제외한 「계사상전」 9장의 구절로 고대 서법을 재구성하고 있다.(⑦) 그리고 뒤 이어 그러한 揲蓍求卦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를 變爻의 有無多寡에 따라 占斷하는 방법을 『춘추좌씨전』과 『國語』의 筮例에 근거해 4. 고변점 편에서 정식화함으로써 『역학계몽』을 끝맺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역학계몽』은 주자가 『주역』의 始原이라고 간취하였던 河洛 특히 河圖를 중심으로 복희씨 때 易의 모습 즉 筮法과 八卦 次序, 方位 등을 복원함으로써 『주역』이 점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자신의 역학사상을 논증하기 위해 精巧하게 構圖된 書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규정만으로 『역학계몽』이 함축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세세히 다 포섭되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것이 주자가 『역학계몽』을 통해 표명하고자 하였던 역학사상의 핵심적인 면모라고 간주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 Ⅲ. 朱子의 ‘聖人則河圖’에 대한 解釋.

前章에서 살펴본 『역학계몽』의 대체적인 성향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는 ‘聖人則河圖’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직접 주자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聖인이 법칙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河圖를 법칙으로 삼은 것은 그 가운데를 비운 것이다. … 하도의 5와 10을 비운 것은 太極이고, 홀수 20과 짝수 20은 兩儀이며, 1·2·3·4로 6·7·8·9를 만든 것은 四象이고, 四正方의 합쳐진 상태(合)를 쪼개서 乾·坤·離·坎을 만들고 네 모서리의 빈 곳을 채워서 兌·震·巽·艮을 만든 것은 八卦이다.’<sup>10)</sup>

주자가 말하였다. ‘四象의 관점에서 보면, 太陽의 자리는 1에 있고 수는 9인데, 乾은 그 수를 얻고 兌는 그 자리를 얻으므로 乾은 9가 되고 兌는 1이 된다. 少陰의 자리는 2에 있고 수는 8인데, 離는 그 수를 얻고 震은 그 자리를 얻으므로 離는 8이 되고 震은 2가 된다. 少陽의 자리는 3에 있고 수는 7인데, 坎은 그 수를 얻고 巽은 그 자리를 얻으므로 坎은 7이 되고 巽은 3이 된다. 太陰의 자리는 4에 있고 수는 6인데, 坤은 그 수를 얻고 艮은 그 자리를 얻으므로 坤은 6이 되고 艮은 4가 된다. 지금 6·7·8·9

10) 胡廣(等編), 『性理大全』 卷十四, 「易學啓蒙一」, 保景文化社 影印本, 1984, 254쪽 上右. ‘然則聖人之則也, 奈何. 曰則河圖者 虛其中. … 河圖之虛五與十者, 太極也, 奇數二十偶數二十者, 兩儀也, 以一三四爲六七八九者, 四象也, 析四方之合以爲乾坤離坎, 補四隅之空以爲兌震巽艮者, 八卦也.’

의 합쳐진 상태를 쪼개어 乾·坤·離·坎로 삼아 四正方의 자리에 놓고, 1·2·3·4의 순서에 의해 震·兌·巽·艮으로 삼아 네 모서리의 빈곳에 채운다.<sup>11)</sup>

위 인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우선 홀수인 奇數를 흰점, 짝수인 偶數를 검은 점으로 표시하여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1·6-아래(북쪽), 2·7-위(남쪽), 3·8-왼쪽(동쪽), 4·9-오른쪽(서쪽), 5·10-중앙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河圖에서 중앙의 5와 10은 제쳐두고 쓰지 않으며, 그 5와 10은 숫자상 太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마치 筮法에서 50개의 시책 중 한 개를 뽑아 평소 시책을 담아 두었던 통 속에 다시 넣어두지만 그것이 모든 서법과정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는 의미에서 太極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으며, ‘伏羲八卦次序之圖’<sup>12)</sup>에서 맨 아래의 빈 공간이 太極을 함의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하도에서 5를 뺀 나머지 홀수의 합 20과 10을 뺀 짝수의 합 20은 각각 陽儀와 陰儀를 의미하며, 1,2,3,4에 중앙수 5가 더해져 6,7,8,9가 되어<sup>13)</sup> 1·6, 2·7, 3·8, 4·9의 결합된 형태로 하도의 4 정방향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四象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런 다음 그 4 정방향에 홀수(짝수)와 짝수(홀수)가 결합되어진 상태의 것을 쪼개어 四正方, 四間方 즉 8방향에 재배치한다. 그러한 재배치는 근본적으로 ‘팔괘차

11) 『傳義大全』 권수, 14쪽 上右-上左, 細註. ‘朱子曰, 以四象觀之, 太陽之位居一而數則九, 乾得其數而兌得其位, 故乾爲九而兌爲一. 少陰之位居二而數則八, 離得其數而震得其位, 故離爲八而震爲二. 少陽之位居三而數則七, 坎得其數而巽得其位, 故坎爲七而巽爲三. 太陰之位居四而數則六, 坤得其數而艮得其位, 故坤爲六而艮爲四. 今析六七八九之合, 以爲乾坤離坎而在四正之位, 依一二三四之次, 以爲震兌巽艮而補四隅之空也.’

12) 이하 ‘八卦次序圖’라 약칭한다.

13) 『傳義大全』 권수, 18쪽 上右, ‘以河圖言之, 卽六者一而得於五者也, 七者二而得於五者也, 八者三而得於五者也, 九者四而得於五者也.’

서도'의 四象으로부터 八卦로의 引伸과정에 依據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四象에 位와 數라는 개념을 부가함으로써 하도에서 八卦의 방향을 유추해 내고 있다. 즉 四象 가운데 太陽의 경우 乾과 兌로 引伸되는데 乾은 太陽의 數인 9를 얻고 兌는 太陽의 位인 1을 얻어 각각 남쪽과 동남쪽에 배치된다. 마찬가지로 少陰에 속하는 離는 少陰數인 8을 얻고 震은 少陰位인 2를 얻어 각각 동쪽과 동북쪽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같은 논리로 少陽에 속하는 坎은 소양수 7, 巽은 소양위 3을 얻고, 太陰에 속하는 坤은 태음수 6, 艮은 태음위 4를 얻어 각각 서쪽과 서남쪽, 북쪽과 서북쪽에 위치시킨다.

여기서 한 가지 留意해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위 인용문에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주자가 八卦의 방위를 八方에 각각 배치시킬 수 있었던 것은 2. 원패획 편에 인용된 「설괘전」 3장의 구절을 복희씨 때 팔괘 방위를 지시한다고 해석한 邵雍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주자는 2. 원패획 편의 ④와 ⑤가 복희씨 때의 八卦次序와 方位를 가리킨다는 소옹의 先天學說을 전제로 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주자의 '聖人則河圖'에 대한 해석은 결국 소옹의 先天學說을 전제로 하여 聖人 즉 복희씨가 四象으로 상징되는 四方의 河圖數를 四象의 數와 位의 개념을 통해 八卦를 유추해 내고 그 방향을 규정한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다.

#### IV. 朱子の 解釋에 대한 退溪의 反響

그러면 이제 그러한 주자의 해석에 대한 퇴계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퇴계는 '聖人則河圖'를 四象의 數와 位에 근거해 해석한

주자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렇다고 퇴계가 아무런 主見도 없이 주자의 해석을 맹종하였던 것은 물론 아니다. 이 점은 주자와 동일하게 四象의 數와 位에 의해 河圖로부터 八卦 方位를 배정하였으면서도 生數인 1,2,3,4를 位로, 成數인 6,7,8,9를 數로 상정하여 間方에 있어서 주자와는 다른 數의 이동을 제시하였던 玉齋胡氏(胡方平 : ?~?)의 견해를 詳考하였던 데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퇴계는 처음에는 주자가 河圖數의 4가 서쪽으로부터 서북쪽을 補充하는 것 이외에는 1이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2가 남쪽에서 동북쪽으로, 3이 동쪽에서 서남쪽으로 位次를 가로질러 보충하는 것이 모두 橫圖의 자연스러움에서 나온, 바꿀 수 없는 定案인 것으로 여겼었다.<sup>14)</sup> 호씨의 4간방의 괘 배치에 대한 처음의 평가를 ‘義例로 삼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sup>15)</sup> 고 하였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다 뒤에 다시 주자와 호씨의 4간방 괘 배치의 같지 않은 점을 詳考하여 兩說의 특징을 짚어 내고, ‘호씨의 주장이 비록 주자의 本意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한 一說로서 참고할 만한, 근거없이 附會한 것은 아니’<sup>16)</sup>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즉 퇴계는 주자의 해석과 다른 견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주체적인 眼目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것은 수용하는, 학문의 개방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再詳考의 과정을 거쳐 퇴계가 짚어낸 주자의 四偶

14) 『啓蒙傳疑』, (『退溪學文獻全集』 16, 啓明漢文學硏究會편. 1991), 8479-8480쪽. ‘從朱子說, 除四自西而補西北隅之外, 一自北而補東南, 二自南而補東北, 三自東而補西南, 皆攙越位次. 然其得數得位, 皆出於橫圖之自然而不可易矣.’

15) 『啓蒙傳疑』, (『退溪學文獻全集』 16, 啓明漢文學硏究會편. 1991), 8480쪽. ‘若如胡氏之說, 一自北而補西北, 二自南而補東南, 三自東而補東北, 四自西而補西南. 又似簡易齊整, 但其以位配卦也, 不無義例之可疑耳.’

16) 『啓蒙傳疑』, (『退溪學文獻全集』 16, 啓明漢文學硏究會편. 1991), 8486쪽. ‘胡說非朱子本意, 亦可備一說, 而非附會無據者也.’

卦 배치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 다음의 글에서 명료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陰의 경우에는 정방향 괘와 모퉁이 괘가 모두 位와 數로 어울리고, 陽의 경우 정방향 괘는 數를 바꾸고 모퉁이 괘는 位와 어울린다.

주자는 “橫圖”에서의 괘가 그려지는 원리를 미루어 四象의 位(자리)와 數의 순서에 따라 나누어 말하였다. 그러므로 老少陰陽이 각각 그 부류를 따르고 있으니, 乾·坤·離·坎은 이미 그 數를 얻어 사방의 정방향 괘가 되었고, 震·兌·巽·艮 처럼 그 位를 얻은 것들도 또한 각각 그 부류를 따라 그 옆에 붙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震은 少陰位인 2를 얻어 少陰數 8인 離의 곁에 붙어 동북쪽 모퉁이 괘가 되었고, 艮은 太陰位인 4를 얻어 太陰數 6인 坤의 곁에 붙어 서북쪽 모퉁이 괘가 되었으니, 이것은 陰의 老位와 老數, 少位와 少數로서 모두 그 부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兌는 太陽位인 1을 얻어 동남쪽 모퉁이 괘가 되었는데 그 정방향 괘인 乾의 數가 본래는 太陽數인 9이거늘 지금은 (즉 河圖에서는 - 필자) 少陽數인 7로 되어있고, 巽이 少陽位인 3을 얻어 서남쪽 모퉁이 괘가 되었는데 그 정방향 괘인 坎의 數가 본래는 少陽數인 7이거늘 지금은 太陽數인 9로 되어있는 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陽의 老位와 少數, 少位와 老數로서 서로 그 數를 바꾼 것이다. …… (中略) …… 老陽數, 少陽數인 9와 7은 이미 그 방위를 바꾸었는데 3획괘인 乾과 坎이 수를 따라 방위를 바꾸지 않은 것은 어찌 서인가? 쇠[金]와 불[火]은 서로 쓰임이 되는 까닭에 數를 바꿀 수는 있으나, 방위는 정해진 몫[定分]이 있어서 괘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괘를 유추한 것은 數가 바뀌기 이전에 나왔고, 수를 認知하는 것은 괘가 이미 수립된 뒤에 변한 것이니, 또한 造化의 자연스러운 妙함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요컨대 그 생생한 맥락을 알아 막힘이 없게 하는 데에 달려있을 뿐이다.<sup>17)</sup>

17) 『啓蒙傳疑』, (『退溪學文獻全集』16, 啓明漢文學硏究會編. 1991), 8481쪽. ‘陰則正隅卦皆與位數協, 陽則正卦易數, 隅卦協位. 朱子推橫圖卦畫之原, 隨四象位數之次而分言之. 故老少陰陽, 各從其類, 蓋乾坤離坎既得其數, 而爲四方之正卦矣, 其震兌巽艮之得其位者, 又各以類而附其旁. 是故震得少陰之二而附於少陰八離之旁, 爲東北隅之卦, 艮得太陰之四而附於太陰六坤之旁, 爲西北隅之卦, 是則陰之老與老少與少, 皆從其類者

퇴계는 자신의 讀書法에 대해 ‘聖賢이 義理를 말한 데에서 分開하여 말한 곳에서는 分開하여 보면서도 渾淪한 것을 해치지 않고, 渾淪하여 말한 곳에서는 渾淪하게 보면서도 分開한 것을 해치지 않는다.’<sup>18)</sup>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분석적인 것은 분석적으로 이해하면서도 통합적인 면을 놓치지 않고 통합적인 것은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분석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위 인용문은 주자가 河圖의 합쳐있던 四象數를 數와 位의 관점에서 쪼개어 八方에 보충한 析合補空論을 퇴계가 少陰, 老陰과 少陽, 老陽의 두 측면에서 습습하여 그 특징을 짚어내고 있어, 그의 분석적인 것은 분석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통합적인 면을 놓치지 않는 독서법의 한 예로 간주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면 이제 위 인용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하자.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陰과 陽의 경우를 數와 位를 고려하여 그 특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陰의 경우로서 少陰은 少陰位와 少陰數가, 老陰은 노음위와 노음수가 각각 間方과 正方に 위치하여 位가 數와 어울리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소음위에 해당하는 震이 동쪽에 위치한 소음수 離의 곁 동북쪽 모퉁이 괘가 되고, 노음위에 해당하는 艮이 북쪽에 위치한 노음수 坤의 곁 서북쪽 모퉁이 괘가 되어 數와 位

也。至若兌得太陽之一而爲東南隅之卦，其正卦乾之數，本是太陽之九而今爲少陽之七，巽得少陽之三而爲西南隅之卦，其正卦坎之數，本是少陽之七而今爲太陽之九，是則陽之老與少與老，互易其數者也。… (中略)… 夫數之九七，既易其方矣，卦之乾坎，乃不隨數以易方，何也。金火相爲用，數可易也，方位有定分，卦不可易也。然而推卦生於數未易之前，而認數變於卦既立之後，亦何害爲造化自然之妙乎。要在看得活絡而無滯耳。

18) 李滉, 『退溪集1』 권16, 「答奇明彥, 後論」, 한국문집총간 29 424쪽, 민족문화추진회, 1989. ‘在滉讀書之拙法, 凡聖賢義理處, …… 分開說處, 作分開看, 而不害有渾淪, 渾淪說處, 作渾淪看, 而不害有分開.’

가 어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陽의 경우인데 正方은 남쪽이 노양수 9로, 서쪽이 소양수 7로 되어 河圖와 비교해서는 서로 바뀌어져 있으며, 間方에서는 노양위인 兌가 바뀐 노양수의 곁 동남쪽에 위치하고, 소양위인 巽은 바뀐 소양수의 곁 서남쪽에 위치하여 각각 그 바뀐 노양수, 소양수의 자리와 어울리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설괘전」의 ‘乾은 쇠가 되고, 크게 붉은 것이 된다. … 坎은 붉은 것이 된다.(乾爲金, 爲大赤 … 坎爲赤)’는 구절을 근거로 ‘쇠와 붉은 서로 쓰임이 되므로 數는 바뀔 수 있으나, 방위는 定分이 있어 께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한다. ‘방위는 定分이 있어 께를 바꿀 수는 없다.’는 퇴계의 말은 朱子가 하도로부터 八卦方位 설정의 전제로 삼았던 邵雍의 先天學說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婉曲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두 문장은 주자의 생각을 탐색해 이해하고, 闡揚하고자 하였던 퇴계의 진한 苦心의 흔적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 ‘聖人則河圖’條에 대한 朱子의 해석을 퇴계가 어떻게 수용하고 發揮하였는지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퇴계의 견해는 그 후 주자의 해석을 이해하는 正路로서 굳어지게 된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보다 세밀한 검토과정을 기다려 밝혀지겠지만, 旅軒 張顯光(1554~1637)의 『易學圖說』에 위 인용문의 원문이 거의 대부분 轉載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 영향력의 정도는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V. 朱子의 解釋에 대한 星湖의 反響

朱子의 ‘聖人則河圖’ 해석에 대한 성호의 반응은 퇴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先賢 중 퇴계만이 주자의 道를 전했다 평가하

고 주자처럼 퇴계를 尊慕하며 日用之間에 본받고자 하였던<sup>19)</sup> 성호이고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壬亂 이후 주자학이 갖는 사회통합이념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약화된 시대적인 배경도 한 원인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역시 성호의 기본적인 학문자세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아야 되리라고 본다. 성호는 ‘의문을 적게 가지면 조금 진보하고 의문을 크게 가지면 크게 진보한다.’는 주자의 말처럼 군자가 밝아가야 할 올바른 배움의 순서는 의문이 있는 단계에서 의문이 없는 단계에 이르는 것<sup>20)</sup>이라 하여 懷疑精神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로서 依樣보다는 自得을 貴히 여기는 학적 태도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sup>21)</sup> 그러므로 성호는 아무리 주자의 해석이라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점은 의심하며 自得에 의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추구하였는데, 그의 창의적인 경전해석은 대부분 그러한 刻苦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다루고 있는 ‘聖人則河圖’에 관해서도 성호는 河圖의 奇數·偶數의 多少와 그에 따른 순서, 그리고 數에 의한 四方의 陰陽的 區分 등을 근거로 자신의 창의적인 해석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글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① 奇數와 偶數가 선천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1·3·7·9는 기수가 되고, 2·4·6·8은 우수가 되는 것이니, 하도에서 정험해 보면 기수의

19) 李漢, 『星湖全書』 2, 971쪽 上右, 「家狀」. (驪江出版社, 1984.) ‘其在我東先賢, 獨傳朱子之道而最盛, 尊慕退溪, 無異於朱子.’ (『星湖全書』에 한해서는 이하 全書2, 971-上右, 『易經疾書』식으로 표기함.)

20) 全書1, 278-下右, 「答安百順」, 『易經疾書』. ‘朱子謂少疑即少進, 大疑即大進, … 有疑而至於無疑, 固君子之階級次第.’

21) 全書2, 969-上右, 「家狀」. ‘先生之學, 不喜依樣, 要以自得.’

경우는 1과 3이 안에 있고 7과 9가 밖에 있어 꿩꿩(縫)이 서북쪽에 있는 것이요, 우수의 경우는 2와 4가 안에 있고 6과 8이 밖에 있어 그 꿩꿩 곳이 동남쪽에 있는 것이다. 음양이 안팎으로 서로 하나의 원을 이루니 이것을 일러 太極이라고 한다. ② 陽인 기수와 陰인 우수가 나뉘어져 둘이 되면, 꿩꿩 곳이 서북쪽에 있는 것은 동쪽과 남쪽으로 물러나 있게 되는 까닭에 1이 동북쪽에 있고 3이 동쪽에 있으며 7이 동남쪽에 있고 9는 남쪽에 있게 될 것이요, 꿩꿩 곳이 동남쪽에 있는 것은 서쪽과 북쪽으로 물러나 있게 되는 까닭에 2가 서남쪽에 있고 4가 서쪽에 있으며 6이 서북쪽에 있고 8이 북쪽에 있게 될 것이니, 이것을 일러 兩儀라고 한다. ③ 9가 1과 더불어 합쳐져 10을 이룬 것은 老陽이 되어 처음과 끝에 있고, 7이 3과 더불어 합쳐져 10을 이룬 것은 少陽이 되어 그 가운데에 있으며, 8이 2와 합쳐져 10을 이룬 것은 老陰이 되어 처음과 끝에 있고, 6이 4와 합쳐져 10을 이룬 것은 少陰이 되어 그 가운데에 있게 된다. ④ 음과 양이 섞이지 않으면 造化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에 3과 4가 서로 위치를 바꾸고 7과 6이 서로 위치를 바꾸면, 노양이 소음을 포함하고 노음이 소양을 포함하게 되니, 이것을 일러 四象이라고 한다. ⑤ 乾에게서 첫 번째로 구하여 震을 얻는 까닭에 1이 진이 되고, 두 번째로 구하여 坎을 얻는 까닭에 3이 감이 되며, 세 번째로 구하여 艮을 얻는 까닭에 7이 간이 되고 9는 기수의 극한인 까닭에 9가 乾이 된다. 그리고 坤에게서 첫 번째로 구하여 巽을 얻는 까닭에 2가 손이 되고, 두 번째로 구하여 離를 얻는 까닭에 4가 리가 되며, 세 번째로 구하여 兌를 얻는 까닭에 6이 태가 되고 8은 우수의 극한인 까닭에 8이 坤이 된다. 이것은 8괘의 9와 8이 건과 곤이 되는 것이니, 그 기수와 우수의 차례가 마땅하기는 하나 二老의 실수는 아니다.<sup>22)</sup>

22) 全書 3, 408-下右~ 409-上右, 『易經疾書』. ‘其奇偶爲先天圖者, 何也. 一三七九爲奇, 二四六八爲偶, 驗之河圖, 奇數則一三居內, 七九居外, 其縫在西北, 偶數則二四居內, 六八居外, 其縫在東南. 陰陽表裏交結一圖, 是謂太極. 陽奇陰偶判而爲二, 則縫在西北者, 退居于東與南, 故一居東北隅, 三居東, 七居東南隅, 九居南也, 縫在東南者, 退居于西與北, 故二居西南隅, 四居西, 六居西北隅, 八居北也, 是謂兩儀. 九與一合成十爲老陽而居始終, 七與三合成十爲少陽而居其中, 八與二合成十爲老陰而居始終, 六與四合成十爲少陰而居其中. 陰陽不交, 造化不成, 故三與四相易, 七與六相易, 則老陽包少陰, 老陰包少陽, 是謂四象. 乾一索得震, 故一爲震, 再索得坎, 故三爲坎, 三索得艮, 故七爲艮, 九者奇數之極, 故九爲乾. 坤一索得巽, 故二爲巽, 再索得離, 故四爲離, 三索得兌, 故六爲兌, 八者偶數之極, 故八爲坤. 是爲八卦九八之爲乾坤, 其奇偶次第宜,

①에서의 내용을 다른 기록을 참고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호는 우선 河圖 전체의 수를 기수, 우수로 나누고 기수인 1·3·7·9를 안에서 밖으로,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북쪽으로부터 동쪽,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까지 둥그렇게 선을 그어 연결시켜 보면 서북쪽이, 마치 옷감에서 꿰매야 할 곳<sup>23)</sup>처럼, 터져 있어 연결되지 않는다. 같은 방식으로 우수인 2·4·6·8을 안에서 밖으로,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남쪽으로부터 서쪽, 북쪽을 거쳐 동쪽으로까지 둥그렇게 선을 그어 연결시켜 보면 동남쪽이 꿰매야 할 곳이 된다. 기수로 이어진 선과 우수로 이어진 선이 비록 모두 완전한 원을 이루고 있진 못하지만, 그 두 선은 서로 다른 선의 터진 곳을 지나며 감아 돌아 마치 음양의 두 기운이 안팎으로 감싸며 뒤엉켜 있는 음양미분의 상태, 즉 태극의 형상을 연상시킨다. 하도의 수가 보여주는 전체의 형상을 ①에서 태극이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점은 성호가 ‘太極이 兩儀를 낳는다.(太極生兩儀)’에서의 太極, 兩儀는 “一陰一陽之謂道와 같으니 陰陽은 兩에 속하고, 道는 太極에 속하며, ‘之’ 자는 ‘生’ 자에 속한다.”<sup>24)</sup>고 하여 太極을 陰과 陽을 낳는 動的<sup>25)</sup>인 근원으로 간주하였던 점을 환기해 보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성호는 아직 陰陽으로 分化되진 않았으나 陰陽 혹은 더 나아가 四象, 八卦로의 모든 분화 가능성을 河圖數의 配置가 含藏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그것을 ‘팔괘차서

然非二老之實數也.’

23) 성호는 ‘縫’을 기수와 우수가 나갈 수 있다는 뜻에서 ‘門’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全書 3, 404-下左, 『易經疾書』. “一三七九陽也, 而其門在西北, 二四六八陰也, 而其門在東南, 至兩儀判, 則門在西北者, 退居東與南, 門在東南者, 退居西與北.”

24) 全書 3, 407-上左, 『易經疾書』. ‘太極兩儀, 如所謂一陰一陽之謂道, 陰陽屬陽, 道屬太極, 之字屬生字也.’

25) 全書 3, 393-下左, 『易經疾書』. ‘極者, 非枯然一物, 必動而流行.’

도'의 최하층위인 太極에 比擬하였던 것이다. (도표 1)의 첫 번째 그림.)

②에서는 그러한 태극의 전체상이 양의로 분화되는 과정을 수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 기본 방식은 음양을 대표하는 수, 즉 기수와 우수를 각각 陽位인 동쪽과 남쪽, 陰位인 서쪽과 북쪽<sup>26)</sup> 방향으로 옮김으로써, 기수인 1·3·7·9를 각각 동북·동·동남·남쪽에 위치시키고 우수인 2·4·6·8을 서남·서·서북·북쪽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의 왼쪽에는 모두 기수가 위치함으로써 양을 상징하고, 서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의 오른쪽은 모두 우수가 위치함으로써 음을 상징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숫자의 배열은 마치 渾淪한 전체로서의 큰 기운이 음양의 두 기운으로 분화되어 가볍고 맑은 것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아래로 내려와 땅이 되는 형상과 방불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성호가 그것을 양의라고 명명하였던 것은 그러한 연유에서이다. 이것은 '팔괘차서도' 두 번째 층인 兩儀에 해당된다.

③에서는 ②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兩儀가 四象으로 분화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성호는 '10'이라는 숫자에 '완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1·3·7·9 중 기수의 처음과 끝이 되는 1과 9가 합쳐져 10을 이룬 경우는 老陽으로, 기수 중 중간에 있는 3과 7이 합쳐져 10을 이룬 경우는 少陽으로 自己整體性을 확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논리로 우수에 있어서는 8과 2의 합이 10이 되는 것은 老陰으로, 6과 4의 합으로 10이 되는 것은 少陰으로 설정한다. (도표 1)의 두 번째 그림.)

26) 全書 1, 425-下左~ 426-上右, 「則圖畫卦說」. “其縫在西北隅者, 退居于東南, 東南者陽位也. …… 其縫在東南隅者, 退居于西北, 西北者陰位也.”

그런데 이렇게 노양, 소양과 노음, 소음으로 兩儀가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기는 하였으나, 계속 음양의 두 기운이 자기정체성만을 고집하며 서로 뒤섞이지 않으면 만사만물을 낳는 造化의 기능을 이룩할 수가 없으므로 양자는 필연적으로 상호교섭의 과정을 밟게 된다. 그것은 소양, 소음을 이루는 3·7과 4·6에서 3은 4와, 7은 6과 서로 바꾸어 위치시키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 그러면 양의 단계에서는 1·3·7·9였던 왼쪽이 1·4·6·9가 되고, 2·4·6·8이었던 오른쪽이 2·3·7·8이 되어 숫자의 배열로 보면 왼쪽은 노양이 소음을 감싸는 모습이 되고, 오른쪽은 노음이 소양을 감싸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기수와 우수를 둘 씩 묶고 그 위치를 바꿈으로써 ‘팔괘차서도’의 세 번째 층인 二老二少의 엮혀있는 모습이 완성되는 까닭에 성호는 ④에서 이 단계의 숫자 배열을 四象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도표 1)의 세 번째 그림.)

끝으로 ⑤에서는 앞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팔방의 숫자를 「설괘전」 10장에 나타난 父母六子卦의 논리에 따라 팔괘로 대치함으로써 선천도의 팔괘 방위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를 팔괘-방위-하도수의 형태로 정리해 보면 진-동북-1, 리-동-4, 태-동남-6, 건-남-9, 손-서남-2, 감-서-3, 간-서북-7, 곤-북-8로, ‘팔괘차서도’의 네 번째 층이 된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말미의 ‘이노의 실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선천도가 기수와 우수의 다과에 따라 사상을 정하였던 까닭에 노양의 수가 9가 되고 노음의 수가 8이 되었다는 뜻으로, 실제 『주역』에서 9와 6으로 노양·노음의 爻를 가리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sup>27)</sup>

27) 이상 성호의 해석에 대한 논의는 줄고, 「성호 이익의 역학관」(『秦東古典研究』, 제 23집, 2007) 17-19쪽의 내용을 본고의 논지에 맞게 보충, 수정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성호의 ‘聖人則河圖’에 대한 해석은 소옹의 先天學을 받아들이기는 하면서도 주자처럼 그것을 先驗的인 前提로 강제하는 듯한 嫌疑로움이 없이, 河圖數의 奇數·偶數로의 구분과 多少, 數의 陰陽的 性格에 따른 방위 설정 등을 근거로 하여 하도로부터 팔괘 방위의 유추를 합리적으로 해명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역』과 河圖의 연계설을 부정하는 학자들의 논란에 당당히 抗衡할 만한, 論理와 考據의 탁월함을 지닌 創意的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 VI. 맺는 말

지금까지 ‘성인척하도’의 주자 해석에 대한 퇴계와 성호의 견해를 살펴 보았다. 이제 그들의 성취가 갖는 학술적 의미를 반추해 봄으로써 논의를 매듭짓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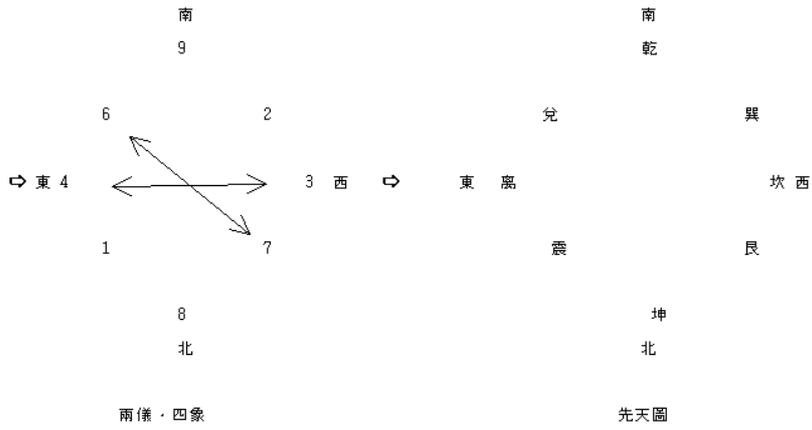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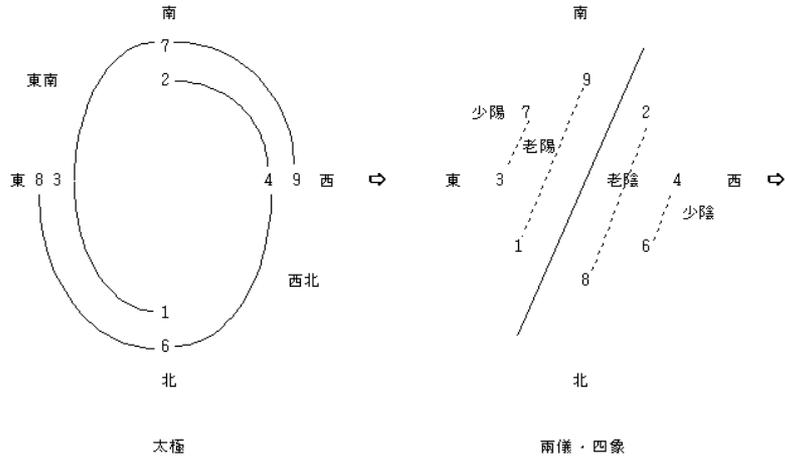
퇴계는 주자에 대한 확고한 尊信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자 해석이 드러내지 못했던 중요한 특징을 짚어 냄으로써 朝鮮에 있어서의 朱子學의 발전적 전개를 가능하게 하였다. 『論語』의 용어를 빌어 표현하자면, ‘述而不作’의 정신이 일구어 낸 의미 있는 성취라 할 수 있겠다. 마치 『주역』의 본 모습을 그대로 전술하고자 하였으면서도 ‘十翼’이라는 倫理中心의 새로운 정신을 그 속에 담지시켰던 孔子처럼. 이에 비해 성호는 주자의 해석 근거가 갖는 敎條主義的 要素를 의문시하고 이를 합리적인 이성으로 條理있게 해명함으로써 조선 후기 경전해석의 실학적 전개를 가능케 하는 端初를 創始했다고 할 수 있겠다. 『論語』의 용어를 빌어 표현하자면 ‘溫故知新’의 학문자세가 성취한 獨創的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독창적’이란 말의 의미가 平地突出의 奇異함이 아니라, 漸進的인

參究의 오랜 과정 끝에 얻게 되는 ‘하늘 사거리(天衢)’ 같은 豁達함ियो, 새로운 경지인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荀子』의 말<sup>28)</sup>처럼, 퇴계는 믿을 만한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성호는 의심할 만한 것을 의심함으로써 모두 믿고 따를 만한 학술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학문의 대조적인 성격으로 인해 본고의 준비과정이 어렵고 고민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두 ‘勞謙君子’의 薰風 속에 陶冶받는 듯한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었음을 굳이 감추고 싶지는 않다.

---

28) 『荀子』, 「非十二子」, 篇. ‘信信, 信也, 疑疑, 亦信也’

도표 1) 河圖에서 先天圖 가 연역되는 과정



【참고문헌】

- 李滉, 『增補退溪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5.  
 \_\_\_\_, 『退溪集』, 한국문집총간 29-31, 민족문화추진회, 1989.  
 啓明漢文學研究會 편. 『退溪學文獻全集』, 1991.  
 李滉, (이우성 편), 1984, 『星湖全書』, 驪江出版社.  
 胡廣(等編), 1984, 『性理大全』, 保景文化社 影印本  
 『周易傳義大全』, 1983, 보경문화사.
- 賈順先, 「李退溪의 儒家 經學에 대한 繼承과 發展」, 『退溪學報』 제90집, 퇴계학연구원, 1996, 7-28쪽.
- 姜敬遠, 「星湖 李滉의 經學 思想 研究」, 성대 박사학위논문, 2000.  
 \_\_\_\_, 『이익』,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1.
- 강세구, 『성호학통연구』, 해안, 1999.
- 강천봉, 『계몽전의연구』, 도서출판 개마고원, 1980.
- 權文奉, 「星湖 李滉의 經學과 四書疾書」, 성대 박사학위논문, 1993.
- 金慶天, 「退溪의 經典認識」, 『退溪學報』 제110집, 퇴계학연구원, 2001, 251-297쪽.
- 金萬鎰, 「朝鮮 17-18世紀 尙書 解釋의 새로운 경향 - 윤희 박세당 李滉을 중심으로 -」, 고대 박사학위논문, 2006.
- 金映鎬, 「李退溪 『四書釋義』에 나타난 經學的 特徵」, 『退溪學報』 제110집, 퇴계학연구원, 2001, 299-324쪽.
- 김용걸, 『이익사상의 구조와 사회개혁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金麟哲, 『茶山の 周易解釋體系』, 경인문화사, 2003.  
 \_\_\_\_, 「退溪와 芝山の 『周易』解釋」, 『퇴계학과 한국문화』36호, 2005, 5-30쪽.  
 \_\_\_\_, 「성호 이익의 역학관」, 『泰東古典研究』, 제 23집, 2007, 1-45쪽.
- 金興圭, 「星湖 李滉의 詩經論」, 『현상과 인식』 5-1, 1979, 48-78쪽.
- 서근식, 「星湖 李滉의 周易解釋에 관한 研究」, 퇴계학보 제117집, 2005, 81-112쪽.
- 송갑준, 「星湖 李滉의 易學思想」, 『철학논집』 6집, 경남대학교, 1991, 31-59쪽.

- 신항수, 「李滉의 經·史解釋과 現實認識」,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1.
- 安泳翔, 「星湖 李滉의 性理說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8.
- 安在淳, 「李星湖의 大學疾書에 關한 考察」, 『동양철학연구』 2, 1981, 53-73쪽.
- 楊在鶴, 「朱子の 易學思想에 關한 研究」, 충남대 박사논문, 1992.
- 원재린, 『조선후기 星湖學派의 學風 연구』, 혜안, 2003.
- 이세동, 「朱子『周易本義』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6.
- 李篋衡, 「星湖經學의 實學的 展開」, 『성대논문집』 17집, 1973, 1-16쪽.
- 李海英, 「星湖 李滉의 經學과 四書疾書」, 『안동대논문집』 13, 1991.
- 崔錫起, 「退溪의『詩釋義』에 대하여」, 『退溪學報』 제95집, 퇴계학연구원, 1997, 7-50쪽.
- \_\_\_\_\_, 「조선 전기의 經書解釋과 退溪의『詩釋義』」, 『退溪學報』 제92집, 퇴계학연구원, 1996, 63-89쪽.
- 『朝鮮後期 經學의 展開와 그 性格』, 대동문화연구원, 1998.
- 韓國周易學會編, 『周易과 韓國易學』, (주)범양사출판부, 1996.

Abstract

### A Study on I-Hsueh Philosophy by Toegye Lee Hwang and Seongho Lee Ik

Kim, In-Cheol

The study aims to figure out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regarding 'Saints accept Ho Tu(河圖) as a rule' mentioned by Chu Hsi(朱熹) centering around responses and opinions expressed by Toegye Lee Hwang(退溪 李滉) and Seongho Lee Ik(星湖 李瀾). Chu Hsi's interpretation on 'Saints accept Ho Tu as a rule' is based on Xian Tian Lun(先天論) by Shao Yung(邵雍), and saints represented by Fu Xi Shi(伏羲氏) analogized Ba Gua(八卦) based on the concepts of numbers and bearings of Four Symbols(四象) and defined directions with regard to Ho Tu Shu(河圖數) of four directions represented by Four Symbols.

Toegye proactively accommodated Chu Hsi's view, and it was materialized through disclosure of interpretational characteristics of Chu Hsi. In comparison, Seongho adopted a different standard from Chu Hsi by dividing Ho Tu Shu into odd numbers and even numbers while rationally analogizing Ba Gua Fang Wei(八卦方位) from Ho Tu based on larger or smaller numbers and bearings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characteristics of yin and yang of numbers. Different responses from Toegye and Seongho with regard to Chu Hsi's interpretation unveil Toegye's consistent respect for Chu Hsi and Seongho's critical acceptance of different views based on efforts to figure out new reasonable alternatives, and it stems from thei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studying. According to Confucian Analects(『論語』), it can be summarized as 'Passing down old ideas without creating new ones(述而不作)' and 'Gaining new insights through restudying old material.(溫故知新)' Such

differences led to advancement of Chu Hsi's philosophy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while paving the way for interpretation of scriptures based on Silhak(實學).

Key Word

Toegye, Seongho, Chu Hsi, Ho Tu, Xian Tian Lun, Passing down old ideas without creating new ones, Gaining new insights through restudying old material

- 논문투고일 : 2011.6.20 심사완료일 : 2011.7.26 게재결정일 : 2011.8.5